

# 조선중기 은거선비의 집터와 별자리의 관계

-張顯光(1554-1637)의 「立巖記」에 대해서 -

김동욱

(경기대 건축학부 교수)

## 1. 머리글

16, 17세기에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관리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지방의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은거 생활을 하면서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으로 일생을 보냈다. 선비들은 은거하는 집터를 고르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집을 지을 때는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된 건축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했다. 선비가 죽은 후에 그 집이나 집터는 書院으로 조성되어 후배들이나 후손에 의해 정성껏 유지 관리되었다. 선비들이 은거하던 집이나 서원은 선비들의 건축관이나 자연관이 잘 반영된 하나의 고유한 건축형식으로 자리잡았고 이것은 조선시대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은거하는 선비들은 집 주변의 자연 경치를 즐기고 자연물에 이름을 짓고 그에 대한 시를 짓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은거를 결심하는 선비들에게 집을 지을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종종 선비들의 은거지는 풍수지리설에서 이상적으로 설명하는 곳이 선택되었다. 어떤 때에는 중국의 이름난 명승지와 유사한 곳이 선호되기도 하였다. 송대 유학자인 朱子가 은거하던 武夷山이나 武夷精舍는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자신의 은거지로 비유하던 곳이었다.

旅軒 張顯光(1554-1637)은 이 시기 많은 은거 선비 중의 한 사람이다. 일생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학자로만 지낸 장현광은 17세기 초에 경상도의

한 외진 곳에 자신의 은거지를 얻었다. 몇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로 한 그곳은 立巖이라는 큰 바위가 있고 산과 물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다. 은거지를 결정하고 나서 장현광은 그 집터와 주변을 설명한 하나의 글을 지었다. 「立巖記」로 제목을 붙인 이 글에서 장현광은 자신의 은거지와 주변의 산과 시냇물, 골짜기 28곳을 택해서 각기 이름을 짓고 입암과 주변 28처의 관계를 北極星과 주변 28宿의 성좌에 견주었다. 28수 성좌는 漢나라 이전부터 전해오는 고대 중국 별자리의 중심 개념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들의 은거지를 다양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비유해 왔다. 그 과정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고유한 건축과 자연에 대한 문화가 창출되었다.<sup>1)</sup> 장현광이 자신의 은거지를 별자리로 비유한 것도 그러한 다양한 해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집터를 별자리에 비유함으로써 자신의 거처가 갖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장현광의 일생과 그의 은거 생활을 간단히 정리하고 「입암기」를 통해서 장현광이 지었던 28수의 별자리와 은거지의 관계를 살펴본 다음, 입암과 별자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조선시대 은거선비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인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집터를

1) 조선시대 선비들의 건축문화에 대해서는 김동욱, “선비들의 서당과 정자”(『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를 참조바람

선정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이루어 놓은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2. 장현광의 삶과 입암촌 은거

장현광은 1554년(명종9), 경상도 仁同에서 태어나 그 곳에서 성장했다. 부친은 사후에 이조판서의 지위를 얻었으며, 그의 일가는 인동 주변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했던 유력한 가문이었다. 그는 이미 18세에 우주의 원리와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바른 자세를 기술한 「宇宙要括帖」을 지어 학자로써의 자질을 보였다. 학문의 폭이 넓고 진지하여 일찍부터 이름을 얻었으며 23세 때에는 재능과 행실이 드러나 조정에 천거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이후 여러 차례 나라에서 관직이 除授되었지만 대부분 나가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나이 40 이후인 1602년 잠시 중앙 관직에 나가 周易을 교정하는 작업에 참가했고 1626년에 왕의 부름을 받아 잠시 형조참판을 맡았으나 곧 사직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중앙의 고위직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양하고 고향집과 그 인근 여러 곳에 머물면서 학문에 몰두하였다.

장현광은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않고 자주 거처를 옮겼다. 자신의 호를 나그네 여(旅)자에 집현(軒)자로 정한 것도 이러한 자신의 생활을 반영한 결과였다. 여러 장소 가운데 비교적 그가 오랜 기간 거처하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곳이 입암이라는 바위가 있는 입암촌과 고향집이었다. 입암촌에는 나이 47세 되던 1600년경에 발을 들여놓았다. 처음 이곳을 찾았을 때, 「군자(君子)가 정신을 기르고 본성(本性)을 기를 수 있는 곳」이라고 평했다. 그 후 53세 때에 여기에 입암정사(立巖精舍)라는 서재를 짓고 학문을 하고 휴식하는 장소로 삼았다.

56세가 되었을 때는 고향 주변에 새로운 거처를 지어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로 이름짓고 이후에는 입암정사와 부지암정사 두 곳을 오가며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을 하였다. 생의 마지막에는 입암촌에 칩거하게 되었으며 나이 84세에 입암촌에서 생을 마쳤다.

장현광이 입암촌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그의 친구들의 권유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이곳에는 장현

광의 친구들인 權强哉, 孫吉甫, 鄭汝燮, 鄭君燮 네 사람이 먼저 자리잡고 있었는데,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에 그를 청해서 함께 머물기를 권하였다. “옛날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고, 혹 마을의 농부들이 이곳에 와서 농사짓는 자가 있었으나 땅이 척박하여 곡식을 경작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었다.”고 하였듯이<sup>2)</sup> 이곳은 땅이 척박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소를 둘러 본 장현광은

“지형이 이미 높으면서도 오목하게 파여서 냇물을 따라 가는 자들은 이곳에 마을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니, 참으로 은자(隱者)가 살만한 곳이다”<sup>3)</sup>

고 만족해하고 이곳을 은거할 장소로 삼았다.

본격적으로 입암촌에 정착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인 1607년에 입암정사를 짓고 나서인 것으로 보인다. 건물이 완성된 다음 적은 기문에서 장현광은 건물의 용도를 평하여,

“세상의 분주하고 화려함을 등지고 가치 없는 부귀영화에 치달림을 천하게 여겨, 책을 읽고 이치를 궁리하고 탐구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이며, 몸을 닦고 性을 기르는 것이 우리의 본業이다. 이를 아는 자들이 여기에 머물며 학문을 닦는다면 바름을 길러 聖인이 되는 공부가 산 아래의 물에 형상할 수 있고, 옛 성인들의 훌륭한 말씀과 행실을 많이 쌓는 것이 산 가운데의 하늘에 法 받을 수 있을 것이다.”<sup>4)</sup>

고 정의 내렸다. 세상의 번잡함이나 영화를 버리고 몸을 닦고 성을 길러 학문에 전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정사가 완성된 뒤에 장현광은 인동의 본가와 입암촌을 오가며 지냈다. 입암촌에서는 학문을 하는 한편 친구들을 벗삼고 자연을 노래하며 지냈다. 그 사이에 입암 주변의 경관을 설명한 「立巖說」을 짓고, 「立巖13詠」이라는 입암 주변 13곳의 경관을 노래한 시와, 입암 주변 경치를 노래

2) “입암에 대한 기문”, 「국역여헌집2」 권9, 기, (민족문화추진회, 1996) p.79

3) 其形勢既高而凹, 沿溪而行者, 不知其有村焉, 眞隱者之居也. (「旅軒集」, 卷九, 立巖記)

4) 背世上之紛華, 賤末路之奔馳, 知讀書窮理之爲吾急務, 識修身陽性之爲吾本業者, 於此馬藏以修之, 則養正作聖之功 (「旅軒集」 卷九, 立巖精舍記)



사진 1. 입암 전경

한 「입암」, 「小魯峯」, 「起予巖」, 「合流臺」 등 적지 않은 시문을 남겼다.

## 2. 「立巖記」의 내용

장현광이 입암기를 지은 것은 처음 입암을 방문한 이듬해인 1601년이었다. 친구들로부터 산과 골짜기, 시냇물 등 주변 경관에 대해 이름짓기를 요청 받고 이름을 지었으며 나아가 「입암기」를 짓게 되었다.<sup>5)</sup>

「입암기」는 전체 약 5,900자의 한문 기사로, 일반적인 개인 문집의 기문으로는 장문에 속한다. 서두에 입암이라는 바위의 형태 특징을 서술하고, 입암을 둘러싼 주변의 산봉우리, 시냇물, 숲, 바위, 그리고 시냇물 주변의 각종 경관을 이루는 조형물, 못, 다리 등에 대해서 모두 28곳을 골라 하나씩 이름을 붙이고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 이어서 입암과 28곳을 북극성과 28宿의 星座에 비유하였다.

「입암기」는 먼저 선바위의 형상 묘사로 시작된다. 「입암」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도 있지만 이곳의 입암이 가장 형태가 바르고 기이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sup>6)</sup> 이어서 친구들의 권유로 입암기를 쓰게 된 내력을 적고 입암 주변 28곳에 대한 위치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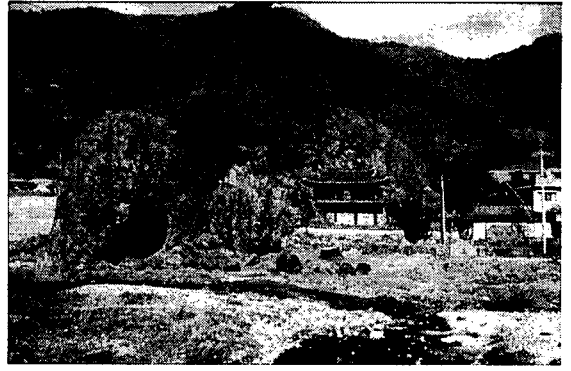


사진 2. 입암과 주변의 모습

상 그리고 장현광이 새로 명명한 이름을 적어 나갔다.

우선, 입암 동쪽 옆에 집 몇 칸을 세울만한 곳을 정하고 장차 세울 서재의 명칭을 「友蘭齋」라 하였다. 난초는 君子들이 차고 다니는 식물이기 때문에 서재 이름을 지었다고 하였다. 입암 북쪽 인접한 곳의 바위를 「起與巖」이라 하고 바위中间的 넓은 터를 다듬어 「戒懼臺」라고 이름지었다. 계구대는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장소로, 3면이 모두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대 위에 앉으면 항상 깊은 못에 임하듯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풀이하였다. 우란재와 기여암, 계구대는 입암과 함께 은거지의 가장 중심 되는 부분이다.

계구대 외에도 다섯 곳의 대를 설정했는데, 입암 가까운 시냇가에 「鏡心臺」, 그 상류 물굽이를 이룬 곳을 「避世臺」, 다시 냇가 넓은 바위 옆을 「尙嚴臺」, 경심대 하류의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곳을 「晝裏臺」, 화리대 서남쪽 북쪽 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합류하는 곳을 「合流臺」로 이름지었다.

나머지 장소는 산봉우리와 골짜기, 들과 숲, 그리고 못과 다리, 우물, 돌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봉우리는 입암에서 가까이 바라다 보이는 동쪽 봉우리를 「吐月峯」, 남쪽 봉우리는 「九仞峯」이라 하고 그 사이를 「舍輝嶺」이라 하고 멀리 입암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 산봉우리를 「産芝嶺」, 남쪽을 「亭雲嶺」이라 하고 북쪽의 높은 봉우리는 「小魯峯」, 서쪽 시냇물 하류의 골짜기 초 입구의 가장 웅장하고 높은 봉우리를 「隔塵嶺」이라고 했다.

골짜기는 맨 아래 어구를 「招隱」, 시내 위에 있는 것을 「尋眞」, 정운령 아래 골짜기는 「採藥」이라 했다. 시냇물 남쪽의 넓은 들이 있어 「耕雲」이라고 하고 그 곁에 숲이 우거진 자리를 「惹煙」이라 했

5) 입암기는 장현광의 문집인 「旅軒集」에 실려 전하고 있다. 「旅軒集」은 1637년 장현광이 죽은 후 아들 應一에 의해 편집되어 5년 후인 1642년에 「性理說」 8권 6책과 「原集」 11권 6책이 목판본에 의해 간행되었다. 이후 19세기말에는 초간 때 누락되었던 시문을 모아 속집이 간행되었다. 현재 초간본과 속집이 모두 전하고 있다.

6) 立巖이라는 명칭이나 지명은 다른 곳에도 널리 발견된다. 그 중 이름 난 곳으로는 寒岡 鄭述가 武屹精舍를 지었던 星州의 입암이 있고 영월의 입암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다. 시냇물 가운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못이 있는데, 경심대 곁을 ‘數魚’, 상엄대에서 상류로 몇 리쯤 올라간 곳을 ‘浴鶴淵’이라 하고 하류의 두 물이 합류하는 곳의 너르고 깊은 못은 ‘釣月’이라 했다. 또 초은동 어구에 이르러 시냇물이 큰못을 이룬 곳은 ‘洗耳潭’이라 했다.

초은동 어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의미를 부여하여 설명하기를,

“여울물을 따라 내려가서 초은동의 어구에 이르면 시냇물이 못을 이룬 것이 있는데, 그 크기가 상류의 것보다 배나 되는바, 외부 사람으로 이 골짜기에 들어오는 자와 산중 사람으로 이 산을 나가는 자는 모두 이 못을 경유한다. 그리하여 塵世와 仙界, 神仙과 凡人들이 여기에서 모두 나누어지므로 못 이름을 ‘세이’라 하였으니, 이는 마음에 巢由와 許父를 따르고자 해서이다”<sup>7)</sup>

고 의미를 설명했다. 즉, 입암촌의 입구를 진세와 선계, 신선과 범인들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보고 입암을 신선이 사는 곳으로 상정했던 것이다.

이어서 시냇물을 건너는 다리는 마을 어구에 있는 것을 ‘響玉’, 경심대 곁을 ‘踏苔’라고 하고 기여암 곁의 차고 시원한 우물은 ‘勿羈’이라 이름지었다. 마지막으로 입암 곁에 돌이 일곱 개가 서 있는 것을 두고 모양이 북두칠성과 유사하다고 하여 ‘象斗石’이라고 하였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약초가 생산된다는 산지령이나 봉우리가 둥근 달을 토해 내는 듯하다는 토월봉 처럼 지형에 근거한 것도 있지만 세이나 구인 등 중국의 故事에서 유래한 것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모두 28곳의 이름을 정하고 그 유래를 설명한 뒤에 기문은 아래와 같이 그 이름 지은 배경을 별자리에 연관해서 설명한다.

“이상, 이름을 얻은 것이 스물 여덟 곳인데 스물 여덟 곳이 각자 좋은 경치가 있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이름을 얻은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한 입암의 기이함이 있지 않다면 스물 여덟 곳이 스스로 좋은 경치를 자랑하지 못하여, 심상한 가운데의 구릉과 골짜기, 봉우리와 水石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니, 그 누가 명칭을 붙여 일컫겠는가. 그렇다면 스물 여덟 곳

의 좋은 경치는 입암을 얻어 드러나고, 입암의 빼어난 기이함은 스물 여덟 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인하여 풍부해 지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북극성이 28수의 높이는 바가 되고 28수가 빙 둘러 향하지 않으면 북극성이 또한 홀로 높음이 될 수 없으며, 28수는 비록 각자의 자리가 있으나 북극성의 높음이 있지 않으면 또한 빙 둘러 향할 곳이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한 角宿가 28수의 첫 번째 별이 되어서 이 각수가 제자리를 얻은 뒤에야 나머지 27개 별이 차례를 따라 진열하니, 이는 입암이 스물 여덟 곳의 중주가 되고 계구대가 또한 스물 일곱 곳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유이다.”<sup>8)</sup>



사진 3. 옥학연 전경



사진 4. 세이담 전경

즉, 입암 주변 28곳의 산과 골짜기, 시냇물과 바위는 입암이 있음으로써 특별히 이름을 지어 경치를 드러내는 것이며 입암의 기이함은 스물 여덟 곳의 경치 때문에 풍부해 진다고 하였다. 이런 관계는 북극성과 28수의 관계와 같은 이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28수의 첫 번째 별이 각수임을 예로 들어 입암이 스물 여덟 곳의 중주가 되며 계구대가 나머지 스물 일곱 곳의 우두머리 즉 角宿와 같은 관계라고 풀이하였다.

아울러 입암 곁에 돌이 일곱 개가 서 있는 모양

8) 惟此得名者二十八處，二十八者，各者有勝致，即得名固宜矣，然不有一立巖之奇絕，其二十八處不能自嘯其勝致，以舉尋常中丘陵洞壑，峰巒水石，無以異矣，孰爲之名目以稱之哉，然即二十八之勝致，得立巖而著焉，立巖之奇絕，因二十八勝致而富焉，然亦不有戒懼一臺，固不能光立巖之奇絕，以賈夫二十八之勝致，又不能輸得二十八之勝致，以贊夫立巖之奇絕，此所以有立巖則不得無戒懼臺也，是如北極爲二十八宿之所尊，而非有二十八宿之環拱，北極亦不得爲獨尊，二十八宿，雖各有挨次，而不一北極之尊，亦無所於環拱，又其中角之一宿，爲二十八宿之首星，角得其次然後二十八宿，循次而列焉，此立巖所以宗乎二十八子，而成懼臺，又二首乎二十七者也 (앞 글)

7) 從巖而下，至招隱洞之口，溪之成潭者，培於上流之淵，外人之入此洞者，山人之出是山者，皆過於是潭，塵雲仙凡，此焉皆分，故潭名曰洗耳，意欲追巢許也。(『立巖記』)

표 1. 입암 주변 스물여덟 곳의 명칭과 위치 및 특징(『旅軒集』, 『立巖記』에 의함)

구분	명 칭	위치 및 특징	비 고
건물	우란재 友蘭齋	입암 옆. 3칸서재	
바위	기여암 起與巖	입암에서 북쪽, 높이 4길의 바위	
대	계구대 戒懼臺 경심대 鏡心臺 상엄대 尙嚴臺 화리대 畫裏臺 합류대 合流臺 피세대 避世臺	입암의 위, 기여암의 아래 중간에 있는 평평한 바위 입암 밑 시냇물 흐르는 가운데 평평한 돌 피세대에서 시냇물 건너 1,2리 못되는 곳의 두 개 큰 돌 경심대 물길 아래 서쪽 벼랑 못 앞으로 형성된 바위 화리대에서 서남쪽 2리. 시냇물이 합류하는 곳 경심대 위의 물굽이 이룬 곳	각수
산봉우리	구인봉 九仞峯 토월봉 吐月峯 소로봉 小魯峯 산지령 山芝嶺 함휘령 含輝嶺 정운령 停雲嶺 격진령 隔塵嶺	대 바로 남쪽, 입암가 마주한 봉우리 대의 동쪽 뒷산 한 줄기의 봉우리 대의 서북쪽, 가장 높은 뒀 토월봉의 동쪽, 깊고빠어난 고개 산지령의 서쪽, 계구대의 동남쪽 한 고개 함휘령의 남쪽, 아득한 사이에 있는 한 고개 서산의 가장 높고 큰 산. 시냇물 하류에 있다	
골짜기	심진동 尋眞洞 채약동 採藥洞 초은동 招隱洞	골짜기가 시내 위에 있는 것 골짜기가 정운령 아래 있는 것 골짜기 맨 아래 어구	
들, 숲	경운 耕雲 야연 惹煙	시냇물의 남쪽 들, 마을과 거리가 1, 2 리 시냇물 곁의 숲	
못	수어연 數魚淵 육학연 浴鶴淵 조월 釣月 세이담 洗耳潭	경심대 옆 흐르는 시냇물이 멈추어 깊이파이고 맑은 작은 못 상엄대에서 거슬러 올라가 뗏리되는 곳에 두 산 사이 못 합류대 앞 물이 너르고 깊은 여울 여울물 따라 내려가서 초은동 어구에 이르러 못을 이룬 곳	
다리	향옥 響玉 답태 踏苔	바깥 길을 따라 마을로 들어올 때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 계구대에서 걸어 내려와 경심대로 향하는 돌다리	
우물	물떡 勿羈	기여암 옆 차갑고 시원한 우물	
돌	상두석 象斗石	입암 곁 북두칠성 모양의 일곱 개 돌	북두칠성

을 두고 象斗石이라고 이름지은 후에 설명을 덧붙이기를

“모양이 북두칠성과 유사하므로 이름하기를 상두석이라 하였다. 사시의 운행과 해와 달의 운행이 모두 북두칠성에서 법을 취하니, 북두성은 星辰에 있어 그 관계가 가장 큰데 돌의 숫자와 상이 마침 북두칠성과 부합하니, 이 역시 하나의 기이한 일이다.”<sup>9)</sup>

고 적었다.

이렇게 입암 주변 스물 여덟 곳 장소의 이름을 짓고 그것을 북극성과 28수로 풀이한 뒤에 장현광은 자연물에 이름을 짓는 의미를 설명해 나간다.

즉, 비록 자연물은 조물주가 만들어 낸 것이지만 인간이 만물을 주장하여 각각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장현광은 자연이라는 것이 인간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인간이 자연 사물에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러한 인간의 자연 이용을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입암기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결국 입암을 북극성에 견주고 그 주변 새로 이름을 붙인 스물 여덟 곳을 북극성을 둘러싼 28수 성좌에 대비시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 3. 고대 중국의 별자리 인식과 입암의 관계

9) 石在立巖之傍者，有數之七，而象似斗星，故名之曰象斗石，四時之運，日月之行，皆於斗星而取法，則北斗之於星辰，其係最大，而石之數與象，適與之符焉，亦一奇也 (앞 글)

### 3-1 고대 중국의 별자리 개념

별자리의 위치와 이름을 정하는 일은 이미 고대 중국에서 그 개념이 체계화되었고 그것은 한반도에 전래되어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다. 고대 중국에서 별자리는 곧 인간 사회의 질서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28수의 개념은 멀리 중국의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중국인들은 초기에는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에 주목하다가 전국시대에 들어와 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달의 운행과 관련해서 28수의 성좌 개념을 만들어냈다. 하늘에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별로 북극성이 있고 그 주변에 赤道를 따라 남북에 있는 별들을 28개 구역으로 구분했다. 각 구역에는 여러 개의 별자리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을 그 구역에 있는 수[宿]라고 정하였다. 수는 7 개씩 묶어 동, 서, 남, 북 네 개마다 7개로 정해서 모두 28수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달이 매일 밤 1개씩 성좌에 머문다[宿]는 개념으로 28수의 명칭이 성립된 것이다.

「史記」 “天官書”에서는 북극성을 君主의 위치로 보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일정한 범위의 항성을 中宮으로 부르고, 28수를 포함한 주위 항성을 동서남북 네 개의 宮으로 분류한바 있다.

이러한 초기의 성좌 개념은 천문에 대한 관측이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발전하여, 3세기 「晉書」 “天文誌”에서 완성을 보게 된다. “천문지”에서는 성좌를 적도에서 북을 中宮, 적도의 남을 外宮으로 나누고 적도 부근의 별은 28수에 分屬시켰다. 다시 隋代에는 ‘步天歌’라는 詩歌의 형태로 정리되면서 분류가 바뀌었다. 즉, 북극성이 있는 넓은 영역을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으로 크게 나누고 적도 부근은 28수로 분속시키게 된다. 이것은 별자리를 관료제로 설명한 「사기」의 기술과 달리 궁전의 구조로 설명한 것인데, 북극성이 있는 자미원은 군주가 거주하는 궁전, 태미원과 천시원은 앞뜰과 기타 궁전이 되고, 28수는 궁전을 둘러싼 성벽에 대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천문도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그 흔적이 전하고 있으며<sup>10)</sup>,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제

작된 많은 천문도 그림이 전한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天上列次分野之圖이다.<sup>11)</sup> 이 그림은 중앙에 세 개의 동심원을 그려 태미원과 자미원, 천시원을 묘사하고 자미원의 가장 중심에 북극성을 묘사하고 있으며 동심원 외곽으로 28수 성좌를 표시하고 있다.

장현광이 입암 주변 28처를 28수 성좌에 견준 것은 바로 이러한 고대 중국의 성좌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장현광은 입암을 28처의 종주 즉 북극성으로 보고 계구대를 다시 27개소의 角宿로 정의했는데, 角은 28수 성좌가운데 동쪽 우두머리 성좌이다. 또 입암 곁의 일곱 돌의 형상을 보고 그 이름을 상두석이라 해서 북두칠성에 견주었다. 북두칠성은 바로 별들의 머리인 북극성의 한쪽 끝에 자리잡은 별이다.



그림 1. 조선시대의 천문도(천상열차분야지도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 것임. 「국역천문류초」, 대유학당, 1999에서 옮김)

### 3-2 입암의 현황과 별자리와의 관계

입암촌은 장현광과 그의 친구들이 정착하면서 농경지를 개간하고 살림집이 들어서 하나의 마을로 조성되어 갔다고 짐작된다. 본래 이곳은 토질이 척박해서 간혹 영세한 농민들이 잠시 들어왔다가 버리고 떠나는 황폐한 곳이었다고 한다. 그것

10) 고구려 고분벽화가운데 집안현덕화리 제1호 무덤에는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으며 이 밖에 고구려에서는 완전한 석각 천문도를 제작한 바 있다고 한다.(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 75)

11)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조선 태조 때 처음 제작되었으며, 이후 세종, 숙종, 영조 때에도 수 차례 다시 제작되어 널리 민간에까지 유포되었다. 처음 제작은 태조 4년(1395)에 권근 등이 책임자가 되어 돌판에 천문도를 새겼으며, 선조 때는 목판본이 제작되어 널리 일반에 유포되었다.(나일성, 앞 책. p.87 - 89)

을 17세기 초 이래로 적극적으로 개간하여 선비들의 은거지로 가꾸어왔다.<sup>12)</sup> 장현광이 입암촌에서 사망한 이후 마을에는 그의 書院과 祭閣이 세워졌다. 서원에는 장현광 외에 권강재, 손길보, 정여섭, 정군섭 네 사람의 위패도 함께 모셔지고 그 후손들에 의해 서원이 유지 관리되어 왔다.

입암촌은 현재 경상북도 浦港市 竹長面 입암리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동, 남, 북쪽으로 가파른 산이 이어지는 사이에 하나의 큰 냇가 흐르고 있고 이 냇가에 바위 하나가 수직으로 우뚝 서 있다. 내의 현재 이름은 住舍川이다. 주사천은 멀리 寧海面의 경계를 이루는 산에서 발원하여 남서 방향으로 여러 차례 굽어지면서 흘러오다가 입암을 지나게 된다. 남북으로 가파른 계곡 사이를 물이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급하게 북쪽으로 구부러지는 곳에 입암이 우뚝 서 있다. 입암은 현지에서 송곳바위라고도 부른다.

바위 북쪽으로 약 40호 정도의 살림집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마을 이름은 松內洞이다. 바위 바로 곁에 3칸의 기와 건물이 있어서 이름을 日齋堂이라고 한다. 당의 동편 약 500m 거리에 장현광의 위패를 모신 재각이 있고 그 남쪽에 장현광과 그 친구 4사람을 享祀하고 있는 立巖書院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의 입암촌은 장현광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 최근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콘크리트 다리가 설치되어 마을로 들어오는 길이나 시냇물도 적지 않게 변했다. 그러나 마을을 둘러싼 산이나 골짜기 등 자연 지형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장현광이 거처로 삼았던 서재도 후대에 다시 개수되기는 했지만 본래의 위치에 잘 남아있다.

현재 입암 바위 바로 곁에는 일제당 건물이 서 있다. 이것은 장현광이 친구들과 머물기 위해 세운 우란재의 후신 건물이다. 집은 시냇물 가에 먼

해 있는데 약간 높은 지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시냇물 가까이 아래층 기둥을 길게 세운 독특한 외관을 하고 있다.<sup>13)</sup> 입암 뒤에는 작은 바위 언덕이 있고 그 중간에 약간 넓은 대가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장현광이 말한 기역암과 계구대이다. 계구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산봉우리와 계곡, 시냇물 주변의 형상을 살펴보면 거의 장현광이 지정했던 28곳의 장소를 比定할 수 있다. 북두칠성 모양의 일곱 개 돌이 모여 있다는 상두석도 거의 유사한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구인봉이나 토월봉, 소로봉이나 정운령 등 산 봉오리와 수어연, 피세대, 상염대, 화리대 등 시냇물 주변의 못이나 바위 등은 장현광이 묘사한 형상을 비교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로 들어 올 때 바위 아래로 흐르는 물을 건너기 위한 다리라고 한 향옥, 계구대에서 걸어 내려와 경심대로 향하는 돌다리라는 답대, 시냇물 곁의 숲이라고 한 야연은 현재는 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시냇물의 남쪽 들로 마을과 거리가 1, 2리라는 경운이나 골짜기 맨 아래 어구라고 한 초은, 골짜기가 시내 위에 있다는 심진이나 정운령 아래 골짜기인 채약 등은 정확한 위치를 비정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이들 불분명한 지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전후 관계를 통해서 막연하나마 위치를 추정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전체 28처의 위치를 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한 것이 (그림 1)이다.<sup>14)</sup> 그림에 표시한 바와 같이 28처의 위치는 입암을 중심으로 해서 시냇물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다. 28처 각 지점의 위치 관계를 살펴볼 때, 특별히 어떤 원칙이나 관련성을 찾아내기 어렵다. 특히 28수 성좌와 관련해서 방위 관계나 위치 관계에 어떤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장현광이 이름 붙인 산봉우리나 골짜기, 연못 등은 단지 자연 그대로의 지형에 따라 자리잡고 있을

12) 이미 1630년대에는 이곳 입암은 장현광의 이름을 듣고 찾아오는 방문객도 적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는 저명한 시인인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도 들어있었다. 박인로는 이곳을 둘러 입암과 주변 경승지를 국문 가사로 지었다. 박인로가 지은 시는 장현광이 지정했던 28처의 경승지 가운데 입암, 기역암, 계구대, 토월봉, 구인봉, 소로잠 등 산봉우리와 피세대, 합류대 그리고 심진동, 채약동, 역연담, 수어연, 경운야 등을 대상으로 모두 29개 가사로 이루어졌다. (『蘆溪集』韓國文集叢刊 65, 卷3 및 李相寶, 『蘆溪詩歌研究』, 1980, 二友出版社.)

13) 이와 유사한 형태를 취한 건물은 입암에서 가까운 경주 옥산면의 계정이나 강동면 수재정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유행하던 건물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당의 평면 형태는 가운데 마루를 두고 좌우에 온돌방을 대칭으로 두었다. 이 평면 형태는 장현광이 이 서재를 세우고 나서 나중에 명칭을 입암정사로 고치면서 적은 입암정사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현재의 일제당 평면은 창건시의 평면 형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후대에 다시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4) 불확실한 부분의 위치 확인 과정에서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향토문화연구회 尹海熙 선생님의 도움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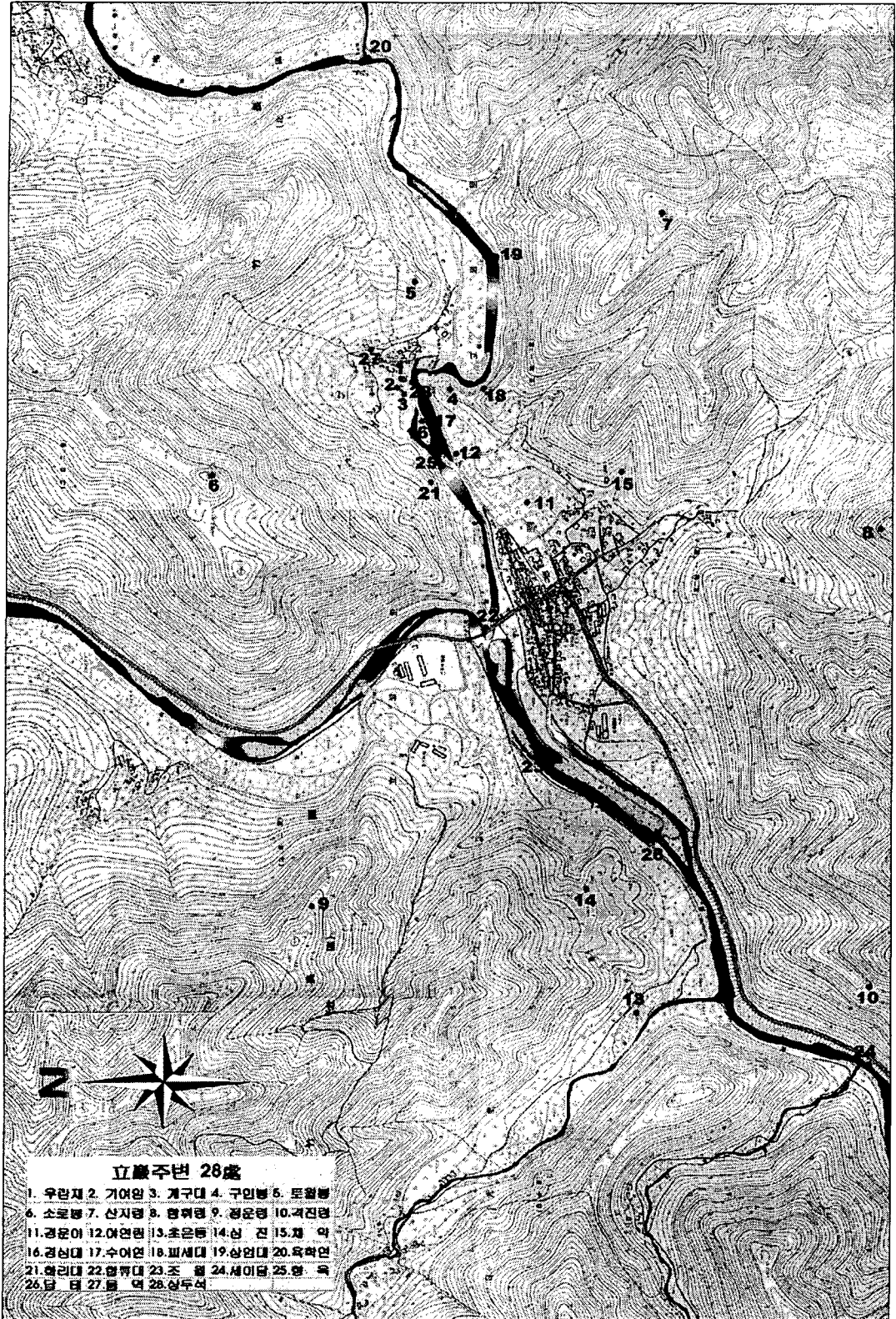


그림 2. 입암과 28처의 배치도(경상북도 죽장면 입암리의 5천분의 1 지형도에 의함)



따름이다. 그러나 북극성에 대비된 입암이 전체 스물 여덟 곳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점과 각수로 대비한 계구대, 북두칠성으로 비유한 상두석의 위치는 비교적 명확하다. 계구대는 과연 28수의 동쪽 우두머리와 같이 입암의 동쪽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상두석은 입암의 바로 아래 일곱 개의 돌이 나란히 있어서 북극성 아래 주걱 모양을 하고 있는 북두칠성을 연상시키고 있다.

#### 4. 입암의 별자리 비유가 갖는 의미

장현광이 입암 주변의 28개 장소에 이름을 짓고 입암과 주변 장소를 북극성과 28수 성좌에 비유한 사실 속에는 조선중기 지식인인 장현광의 천체와 우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아울러 자신의 거처를 천체의 중심에 대비시킴으로써 은거지 입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가지은 「입암기」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은거지를 신선이 사는 세계로 비정하는 道敎적인 면모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천문학은 曆法과 직결되어 있었고, 전통적으로 역법학자들에 의해 계승 발전되었다. 그러나 宋代에 들어와 신유학이라고 부르는 朱子學이 성립되면서 우주와 천체에 대한 해석은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朱子는 기존의 역법 위주의 천문학과는 달리 理와 氣의 본질을 바탕으로 천체와 우주의 구조를 해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종래의 역법학자들의 생각과 다른 새로운 해석을 얻었다. 예를 들어 종래의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고체로 파악했던데 반해서 주자는 하늘을 氣의 쌓임으로 생각하고 우주의 생성이 기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sup>15)</sup>

장현광은 천문에 각별한 관심을 지닌 학자였다. 장현광은 고대의 천문학을 새롭게 해석한 주자의 저서를 통해서 송대 주자학자들의 천문 이해의 수준에까지 도달하였다. 그가 입암의 주변 경승을 28수의 성좌에 대비한 것도 이러한 천문에 대한 관심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현광은 그 스스로 주자의 우주론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보충한 「易學圖說」이나 「宇宙說」 등의 저서를 남겼다.<sup>16)</sup> 이들 저서를 통해서 장현광은 주자의 우주

이론을 수용하는 한편 우주의 구조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sup>17)</sup>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 북극성은 「사기」, 「천관서」에서 太一이라고 언급했듯이<sup>18)</sup> 모든 별의 으뜸이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天帝 또는 人君이다. 이 별 주위에는三公을 비롯한 모든 官署가 배열된다. 「진서」, 「천문지」에서는 북극성을 중앙의 궁전으로 비유했다.

장현광이 입암을 북극성에 비유한 것은 자신이 은거지를 천체의 중심으로 비유하고 입암을 그 중심 되는 곳으로 상정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역학도설」에서 장현광은 북극성을 하늘의 별들 중 최고로 존귀한 존재로 정의하여, 「北辰은 움직이지 않는다. 단지 움직이지 않으므로 氣의 주인이 되었고 때문에 별 중에서 최고 존귀한 것이다.<sup>19)</sup> 고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입암에 대해서도 주변의 다른 것들이 계절의 변화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반해 입암 만은 변함없음을 칭송하여 입암이 북극성과 같은 존재임을 비유했다.<sup>20)</sup>

장현광의 시문 중에는 입암을 천지의 중심으로 비유하는 구절들이 보인다. 이런 글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은거지를 우주의 중심으로 상정하고자 했던 심경을 엿 볼 수 있다.

장현광은 입암촌에 공부하는 장소로 萬活堂을 건립하면서 그 심경을 노래하여

‘나의 집이 바로 천지이고	吾堂而天地
나의 몸이 바로 만물이며	吾身而萬物
금일이 바로 태고라고’	今日而太古也

16) 55세인 1609년에 저술한 「易學圖說」은 역에 관한 기존의 논설과 圖式 그리고 變易, 交易에 관한 요지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인 책이다. 이 책에서 장현광은 천지의 구조와 좌표, 천체의 운행원리, 日蝕과 月蝕 현상, 해와 달, 별의 운행 등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주자로 대표되는 중국 송대 유학자들의 저술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보다 훨씬 후인 1636년에 지은 「宇宙說」에서는 우주를 비롯한 자연계의 여러 측면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역시 주자의 우주론에 입각한 것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7) 전용훈, 「朝鮮中期 儒學者의 天體와 宇宙에 대한 이해-旅軒 張顯光(1554-1637)의 易學圖說과 宇宙說-」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8권, 제2호, 1996

18) 「사기」 권27 「천관서」 제5, 중관편

19) 易學圖說 卷之二 星辰

20) 「旅軒集」, 卷1, 立巖 五言長篇

15) 이러한 견해는 山田慶兒, 「朱子の 自然學」(김석근역, 통나무, 1992)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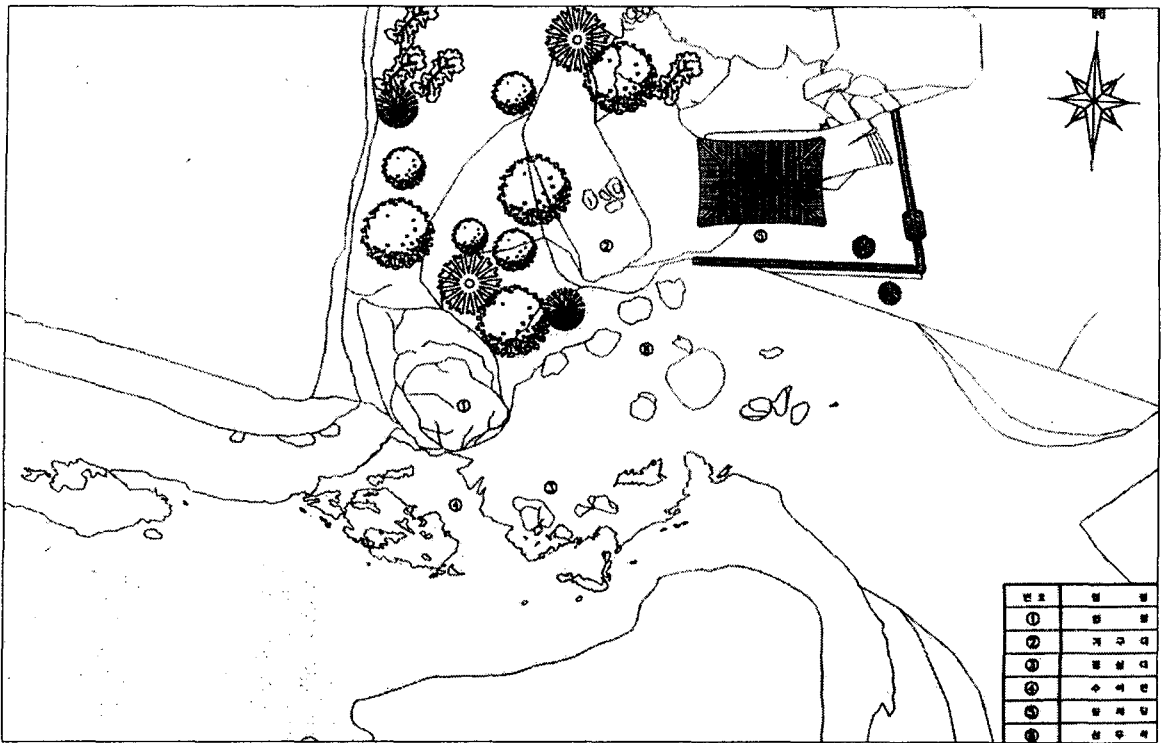


그림 3. 입암 주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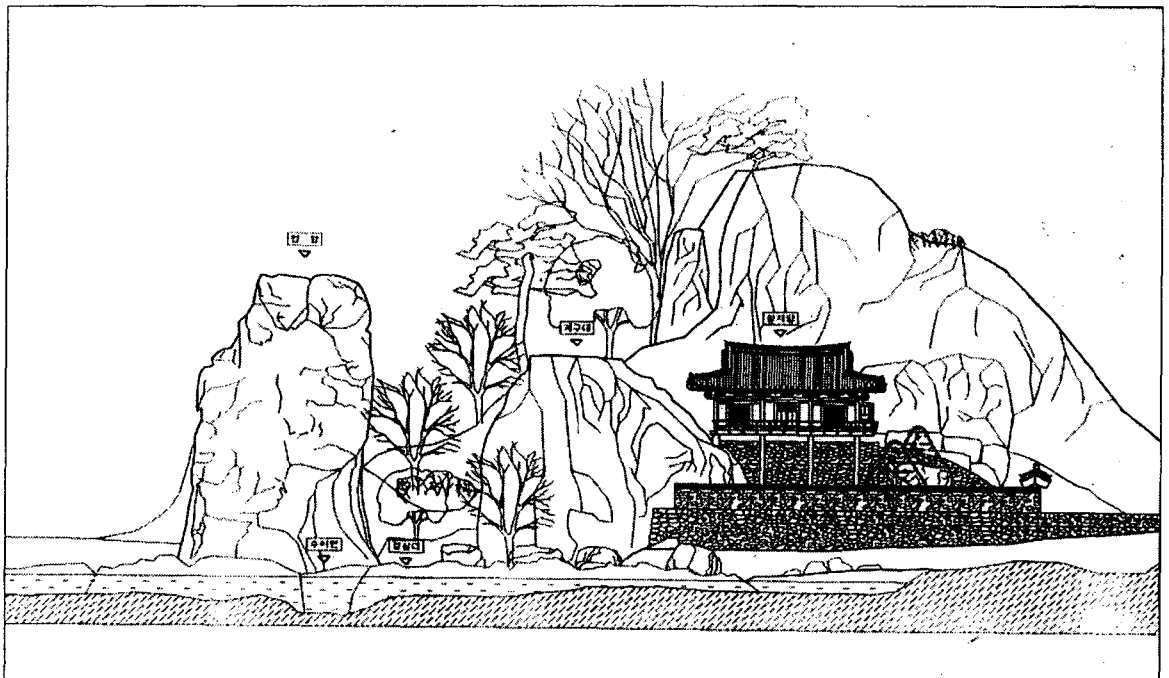


그림 4. 입암 주변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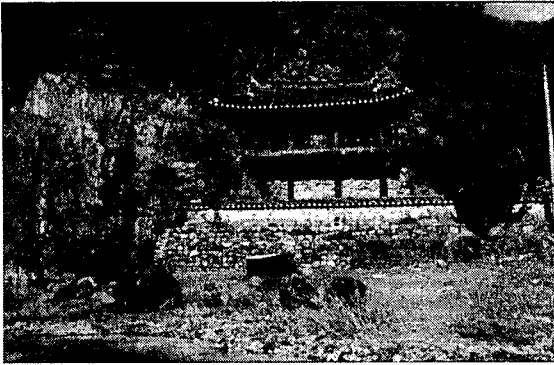


사진 5. 일제당 정면

라고 하여 그 자신의 거처가 바로 천지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1)</sup> 아울러 오늘이 바로 태고라고 하여 만물이 하나임을 노래하였다. 그가 말년에 벽에 적어둔 글귀 즉, ‘앉은 벽에 써 붙인 글[座壁所題]의 主宰 편에는

“마음을 정일함에 두고 存心靜一  
마음을 우주에 놀게 한다“ 遊心宇宙

는 구절이 있다.<sup>22)</sup> 이러한 구절 속에는 자신의 거처가 바로 천지간의 중심이며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그 우주에서 학문을 하며 노닐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천체에 대한 관심과 생각들이 입암과 주변 28처를 북극성과 28수 성좌의 비유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현광은 입암 주변의 이름을 지으면서 골짜기 입구인 초은동 어구를 가리켜 塵世와 仙界, 神仙과 凡人이 나누어지는 곳으로 비정했다. 즉 입암을 둘러싼 골짜기를 선선이 사는 곳으로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 속에서는 조선중기 은거 선비들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道家의인 생각의 일면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북극성이나 북두칠성, 28수 성좌가 道教에서 중요시하는 신앙의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가능성은 적지 않다.

도교는 고대의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하여 神仙說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다 易理 陰陽 五行 醫術 占星 등의 이론과 巫敎의인 신앙을 보내고, 不老長生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현세의 이익을 추구

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 종교라고 정의 내린다.<sup>23)</sup> 도교의 중심 개념인 신선설은 우리나라에서 산악신앙과 결부되어 일찍부터 자리잡았으며 그 영향은 조선시대 지식인들 사이에도 널리 확산되었다. 특히 경치 좋은 자연 속에서 은거하고자 하는 선비들에게 이러한 신선 사상은 떨쳐버리기 어려운 생각이었다고 짐작된다.

한편 도교에는 심신수양을 위한 여러 양생법과 의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도교의 수련법은 도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주자가 「參同契」와 「陰符經」 같은 道書에 관심을 가지고 교정 작업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며 퇴계 이황도 守谷 李滉(1498-1554)이 쓴 養生說을 읽고 그 발문을 적은 적도 있다.

도교의 교리 내지 설법에는 우주의 생성, 天界의 종류 등이 담겨있고, 특히 성좌와 관련된 신앙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도교의 신 가운데 玄天上帝는 북극성을 신격화한 것이며, 北斗神君은 북두성을, 文昌帝君은 북두칠성의 여섯 짝 별인 文昌星을 신격화한 것이다.

星辰에게 제사 지내는 醮祭는 고려시대에 왕실에서 크게 성행했고 조선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이어져서 궁궐 안에 초제를 전담하는 관청으로 昭格署가 설치되고 그 건물인 昭格殿이 세워진 바 있다.<sup>24)</sup>

장현광을 비롯한 조선중기의 선비들이 도교에 심취되었거나 크게 관심을 보인 흔적은 없다. 이들은 오로지 성리학의 진수를 탐구하는데 평생을 보냈다. 다만, 시골에 은거하는 선비들의 경우에 자신의 생활을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사는 신선에 비유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도교적인 양생설에 관심을 기울인 경우는 종종 나타난다.

장현광은 퇴계의 학맥을 이은 영남 유학자의 큰 맥을 형성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전적으로 성리학의 탐구에 몰두되어 있었다. 그가 남긴 시문에 구체적으로 도교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입암기」의 내용을 보면, 그의 생각 속에 도교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나타난다. 즉, 입암 골짜기를 선계로 비정하고 그 중심인 입암을 북극성에, 그 옆

23) 車柱瓚,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p.22

24) 경북궁 내에 설치되었던 소격전은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철폐 요구로 오랫동안 논란을 겪다가 결국 중종 13년(1518)에 철거되었다.

21) 앞 책, 권1, 만활당부

22) 앞 책, 권6 잡저

일곱 돌을 북두칠성에, 그리고 주변 28처를 28수 성좌에 비정한 것 등은 넓게 보아서는 도교적인 생각과 맥이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수련적인 도교는 조선의 선비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특히 은둔하는 지식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한다.<sup>25)</sup> 이런 점에서 「입암기」는 조선 중기 지식인들이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도교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5. 맺는글

경상도 동쪽 외진 골짜기를 은거지로 삼은 장현광은 「입암기」에서 주변 28곳의 여러 자연물에 각기 이름을 짓고 골짜기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입암과 주변 28곳의 관계를 북극성과 28수 성좌에 비유하였다. 또 입암 옆의 일곱 개 돌을 북두칠성, 높은 대는 28수의 첫째 성수인 각수에 견주었다. 아울러 골짜기 어구를 진세와 선계, 신선과 범인의 경계로 삼아 자신의 은거지를 신선이 머무는 선계로 비정하였다.

장현광은 조선중기 선비 가운데도 천문 현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지식인이었다. 그는 우주의 현상에 깊은 관심을 지녔던 주자의 학설을 좇아 천문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그 자신 우주의 구성과 원리에 대한 몇 편의 저술을 남겼다.

입암과 주변 스물 여덟 곳의 배치 형상은 북극성과 28수 성좌의 배치와 형태상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단지 북극성이 28수 성좌의 중심에 있듯이 입암이 주변 28곳의 중심이라는 상징을 나타낼 뿐이다.

비록 형태상의 일치에 이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거처를 하늘의 성좌에 견중으로써 장현광은 천체에 대한 자신의 학문적 관심을 현실에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입암을 북극성에 견중으로써 모든 성좌의 우두머리이며 불변하는 성좌의 상징인 북극성처럼 자신의 은거지 입암이 하나의 불변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입암기」속에는 장현광의 내면적인 도교적 관심도 발견된다. 입암 골짜기를 신선이 사는 곳으로 삼고 입암을 북극성에, 그 옆의 일곱 돌을 북두칠성에 견준 것은 도교적인 신선사상이나 성신 신앙

과 전혀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 장현광의 「입암기」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던 조선 중기 선비들이 가진 도교적 관심의 일면을 보여준다는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 감사의 글

이 글을 작성하는데 내용 교시를 해 주신 李漢基 전영남대학교수와 28처의 위치를 바로 잡아 주신 향토문화연구회의 尹海熙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암 주변을 함께 조사하고 실측 도면을 그린 경기대학교 대학원의 정정남, 최운화, 정춘환, 김재홍, 김나래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참고문헌

1. 「旅軒集」,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60”, 민족문화추진회, 1991.
2. 「국역여헌집1,2,3」, 성백효역, 민족문화추진회, 1998.
3. 車柱環, 「韓國道敎思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8.
4. 山田慶兒譯, “晉書 天文志”, 「世界의名著 續1」, 中央公論社, 1975.
5. 李相寶, 「盧溪詩歌研究」, 二友出版社, 1980.
6. 韓國哲學會編, 「韓國哲學史, 中卷」, 東明社, 1988.
7. 張會翼, 「朝鮮性理學의 自然觀」, 「科學과 哲學, 제2집」, 과학사상연구회편, 통나무, 1991.
8. 山田慶兒(김석근역), 「朱子의 自然學」, 통나무, 1992.
9. 전용훈, “朝鮮中期 儒學者의 天體와 宇宙에 대한 이해”, 「한국과학사학회지」, 제18권 제2호, 1996.
10.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1. 나일성,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Astronomy and the Hermitages developed by Scholars in the Middle Era of Choseon

-The case of Chang Hyon-gwang(1554-1637)-

Kim, Dong-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 ABSTRACT

Ip-am valley, located at the eastern remote part of Korean peninsular was the place where a remarkable Confucian scholar Chang Hyon-gwang spent his secluded days. A large upright stone, called Ip-am, and undulating streams nearby were surrounded by mountains, which formed a large enclosed valley. After selecting 28 natural and artificial places, Chang named each of them. Chang compared the relationship between Ip-am and the 28 places with that of the Polestar and 28 Lunar Lodgings, which were known as the ancient Chinese astronomical concept. Also, Chang regarded the valley as a place where the Taoistic Deity could stay. Chang, who had deep knowledge of astronomy, wrote some books on it. It could be said that the comparison of his hermitages with the Polestar and the 28 Lunar Lodgings resulted from his deep passion for astronomy. He considered the Ip-am valley to be the core of the universe like the Polestar is the core of the celestial world. Some stars like the Polestar or the Dipper were regarded as the Deities of Taoism. We can find that Confucian scholars of the middle Choseon, like Chang Hyon-gwang, also tended to have some concern about Taoism.